

Photo Resource: H/V/Danita Delmonico

모험섬 하와이의 관문 도시, 호놀룰루

# Heavenly Hawaii

몰로카이 섬의 원시림과 칼라우파파 계곡, 마우이 섬의 할레아칼라 분화구, 빅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으로 통하는 입구. 오아후 섬의 호놀룰루는 와이키키 해변과 서핑, 훌라 춤으로 상징되는 일명 '알로하 주'의 주도(州都)일뿐더러 하와이 제도(諸島)의 자연과 문화를 잇는 거점 도시다.

Ever since its rulers chose surfing as the royal pastime, nowhere has conjured up images of sun-stoked bliss quite like Hawaii. And while "The Aloha State" has morphed into a mecca of modern tourism over the years, its most engaging qualities — lush weather, boisterous arts and warm people — remain as deeply rooted as ever.



© Symn Wilk / Mira Terra Images / drr.net



© Jeff Flindt / NewSport / CORBIS / Topic Photo

“웃으세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소년이 꽃목걸이를 걸어 주며 말했다. 웃으라고? 꽃목걸이까지 걸어 주면서 이렇게 환대해 주는데, 콧노래를 부르진 못할망정 얼굴 찡그릴 이유가 없었다. 정말이지, 호놀룰루 식 환영인사만큼 기분 좋은 게 또 있을까.

새파란 대양에 둘러싸인 오아후는 하와이 제도의 일곱 개 유인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이다. 호놀룰루라는 국제도시의 요람답게 오아후 섬은 하와이 제도 일주 여행의 ‘거점’ 역할을 해 왔다. 1200여 년 전 타히티에서 건너온 원주민들의 터전에서 지금은 매년 700만 명의 휴양객이 찾는 아지수의 천국으로. 화창한 날씨 속에서 원기를 재충전하고자 열망하는 이들의 천국.

호놀룰루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와이키키 해변. 약 3킬로미터 길이의 모래사장에는 온몸에 오일을 듬뿍 바른 이들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 속으로 뛰어든 서핑족들을 구경하면서 유유자적한다. 초보 서핑족들은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바닷가에는 초창기 원주민 카누를 본떠 만든 아우트리거 카누가 시원한 바람과 물보라를 만끽하려는 모험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재단장한 와이키키 해변의 산책로와 칼라카우아 거리. 덕분에 호놀룰루는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났다. 하루 중 어느 때고 조깅족들을 볼 수 있고, 해가 질 때까지 서핑족들이 끊이지 않는 곳. 이 청정 도시에 땅거미가 지면 티키 신의 횃불이 타오르고, 음악과 노래, 춤의 향연이 시작된다.

하와이는 ‘인종의 무지개’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곳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통가, 사모아, 필리핀, 중국, 일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기 때문이다. 순수 혈통의 원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하지

“Smile. It no break your face!” the local boy wearing shorts and flip-flops said with a grin as he slipped a lei over my head at Honolulu Airport. Smile? I thought; with the fragrance of the flower necklace, the sight of sun-bathed palm trees and now this most Hawaiian of welcomes, it was all I could do not to burst into song. Truly, there’s nothing quite like arriving in Honolu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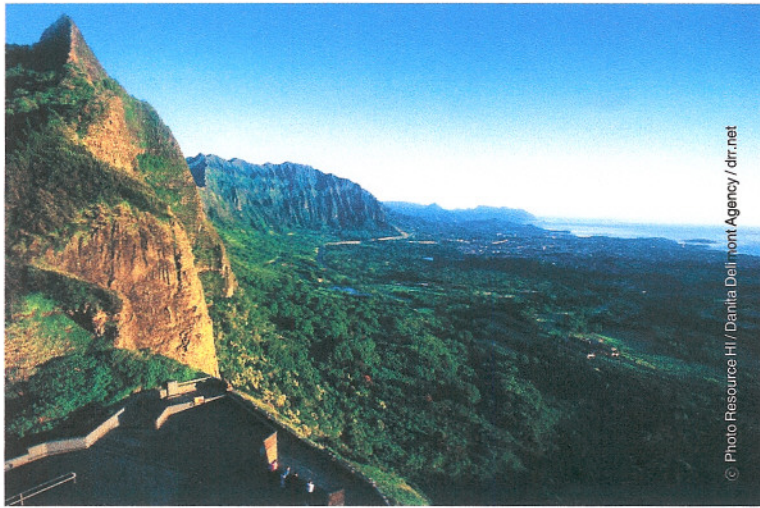
Surrounded by an expanse of deep blue, Oahu, the third-largest of Hawaii’s seven inhabited islands and the home of Honolulu, has been “The Gathering Place” for visitors for centuries. Early settlers migrating from Tahiti arrived here about 1,200 years ago in double-hulled canoes with only the stars to guide them. Today the Aloha Spirit is extended to 7 million visitors a year, all eager to recharge their batteries in its year-round perfect climate.

For today’s pleasure-seeking pilgrims, the first stop is invariably Waikiki Beach, a 3km ribbon of sand lined with resorts and sun-worshippers who spend their days watching surfers skitter across the waves. Once the sport of royal Hawaiians, surfing was first done here centuries ago on huge boards carved of koa wood — but today, beach boys give lessons to beginners in the Waikiki surf on more forgiving boards. Outriggers, modeled on the early canoes, rest on the shore waiting for those eager to feel the wind in their hair and a cooling spray.

A bona-fide ethnic rainbow, Hawaii is today home

하와이에서 서핑을 빼놓을 수 없다. 와이키키 해변을 장식하는 서핑보드(위 왼쪽), 한 서핑족이 오아후의 유명한 ‘오프더월’ 파도 속을 시원하게 가로지르고 있다(위 오른쪽).

Hawaii and surfing are inseparable. Above left, a row of boards for rent on Waikiki Beach, and above right, a surfer knives into a barrel in Oahu’s famous break, “Off the Wall.”



© Photo Resource HI / Danita Delmont Agency / ddr.net



오아후 동부 카네오헤 만 이 내려다보이는 누우아누 팔리 전망대(위 왼쪽). 북부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의 원주민 쇼는 최고 인기 상품이다(위 오른쪽).

The view from the Nuanu Pali Lookout toward Kaneohe Bay (above left). Visitors take in a show at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above right).

만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의 전통 가치를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종교, 역사 유적지에 새롭게 주목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하와이 고유의 정기를 만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놀룰루의 비숍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이다. 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폴리네시아 공예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자동차를 빌려 누우아누 계곡을 지나 오아후 동부까지 달려 보자. 누우아누 팔리 전망대. 1795년 카메하메하 대왕과 전사들은 수백 명의 오아후 원주민들을 쫓아 계곡까지 추격해 왔다. 당시 원주민들은 하와이 제도를 지배하려는 카메하메하 대왕에 맞선 최후의 무장 세력이었지만, 전망대가 있는 고지대까지 내몰려 결국 900미터 절벽 아래 바위지대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 전망대에서는 카메하메하의 정복을 기리고 사자(死者)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영적인 기념의식이 열린다. 이 유서 깊은 전망대 아래로 가슴 설레는 절경이 펼쳐진다. 코올라우 산맥의 아찔한 절벽과 새하얀 물거품 이는 라니카이, 카일루아, 카네오헤 만 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아후 북부의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에서는 옛 왕족들이 즐겼을 법한 루아우 파티가 재현되고, 동부의 카네오헤 만에서는 스노클링 체험에 나선 휴양객이 눈에 띈다. 그러나 진정, 하와이의 옛 모습을 느껴보고 싶다면 오아후를 벗어나 몰로카이로 가 보자. 몰로카이는 야자수보다 높은 건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섬이다. 마우이의 할레이칼라 문화구에서 열리는 해돋이 의식에도 참여해 보자. 오아후 섬을 거점으로 주변 섬으로 탐험을 나서 보자. 바로 호놀룰루가 오아후의 중심지이자 하와이 제도의 관문이다. ● 글린다 발루

to Tongans, Samoans, Filipinos and Japanese as well as North Americans. Indeed, because of the relative dearth of “true blooded” Hawaiians, there is now a movement afoot to reinstate traditional Hawaiian values and bring a new awareness to the state’s sacred historical sites. An excellent way to dip into this indigenous spirit is with a visit to the Bishop Museum in Honolulu, which houses the largest collection of Polynesian artifacts in the world. Better still, hire a car and head up the Pali Highway to the eastern side of Oahu. Here, in 1795, Kamehameha the Great pursued several hundred Oahuans — the last armed resistance to his claiming outright rule of the Hawaiian Islands — to the heights of Nuanu Pali Lookout, and over the 900m cliff to a rocky death below. The lookout affords a heart-catching view of the pleated cliffs of the Koolau Range and the white-fringed beaches of Lanikai, Kailua and Kaneohe Bay.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on northern Oahu hosts a luau fit for Hawaiian royalty. Kaneohe Bay has some of the best snorkeling on the islands. But for the most authentic sense of what Hawaii used to be, head for Molokai, a small island with no buildings taller than a palm tree. From there, a fitting salute to your visit to the islands is to attend the sunrise ceremony at the Haleakala Crater on Maui. Here, they say the smiles never end. And what could be more Hawaiian than that? ● By Linda Ballou

호놀룰루에서 즐기는 하와이 전통 문화와 음식 탐험

## Discovering Waikiki

와이키키 해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마술쇼와 홀라 춤 공연, 게다가 덤으로 하와이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가이드.

Life may indeed be a beach on Hawaii's world-famous Waikiki, but this sizzling seaside strip has plenty to offer the adventurous foodie and culture vulture, too.

와이키키 해변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해양 레포즈 외에도 휴양객들에게 짜릿한 만족을 안겨줄 요소들이 무궁무진하다. 오하나 와이키키 비치커머 호텔에서 공연되는 '매직 오브 폴리네시아' 마술쇼는 환상적인 마술과 폴리네시아 전통춤, 하와이 노래가 어우러진 섬 내 최고의 공연이다. 한편 할레쿨라니 호텔의 노천 무대인 '하우스 위다웃 어 키'에서는 전(前) 미스하와이가 별빛을 조명 삼아 낭만적인 홀라 춤 공연을 펼친다. 춤 말고 음식은 또 어떤가. 하와이의 현대 요리는 전통 음식에 아시아 색깔이 강하게 어우러져 있다.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요리는 대부분 와이키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칼라카우아 거리에 있는 닉스피시마켓은 마히마히(돌고래 고기류), 참새우, 전복, 가재, 가리비 등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선보인다. 와이키키에 있는 케오스는 하와이 전통 색채가 한결 진해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곳. 대표 요리로 코코넛 밀크를 곁들인 새우가 있다.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는 중국, 일본, 하와이, 인도, 필리핀 음식이 어우러진 이국적 분위기로 이름 높다. 와이키키 외곽의 해변으로 나가면 호놀룰루 출어 선단 바로 옆에 피셔맨스워프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또 플레이트런치라는 하와이 식 정식은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요리를 골고루 섞은 실속 메뉴. 팔리 고속도로 주변의 작은 식당에서 포이(타로 토란으로 만든 하와이 주식), 로미로미 연어, 칼루아 돼지고기를 사서 가까운 해변에 나가 피크닉을 즐기는 것도 좋다.

On top of its estimable beach-bum charms, Honolulu's iconic Waikiki Beach has plenty going on to keep all holidaymakers thrilled and filled. Playing at the Ohana Waikiki Beachcomber Hotel, *Magic of Polynesia* combines illusions, Polynesian dance, and Hawaiian song and chant to produce the hottest show in town. Over at House Without a Key, an open-air stage at Halekulani Hotel, two former Miss Hawaiis perform a romantic hula show beneath the stars. Hawaii's contemporary cuisine is a mix of traditional Hawaiian dishes with a strong Asian influence, and much of the best can be found on or around Waikiki.

Nick's Fishmarket off Kalakaua Avenue offers a list of fresh fish dishes that include mahimahi, lobster and scallops. A big local favorite, Keo's in Waikiki is famed for its shrimp in coconut milk. On the waterfront outside of Waikiki, Fisherman's Wharf, right next door to the Honolulu fishing fleet, dishes up some of the freshest seafood you will ever encounter. Alternatively, plate lunches are a frugal, fun way to test local favorites. At places like the People's Cafe on the Pali Highway you can order poi (a Hawaiian staple made from taro), lomi-lomi salmon and kalua pig to take to the beach for a fine picnic.



© Photo Resource HI / Danita Delimont Agency / drr.net



© drr.net



© Michael T. Sedam / CORBIS / Topic Photo

## 호놀룰루 반대편 오아후 섬 동북부 유람 Eastern Promise

누우아누 계곡 너머 동부 해안 휴양지 세 곳과 북부 폴리네시아 문화센터를 잇는 오아후 섬 유람 코스.

**Far (but not too far) from the crowds of Honolulu, eastern Oahu provides all the desert island charm you could need, along with a glittering celebration of Polynesian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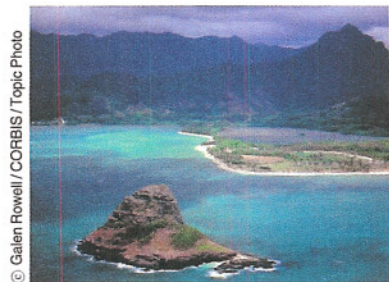
호놀룰루가 위치한 오아후 섬의 동부에서는 항공료와 여행 시간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도 외딴섬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라니카이는 하와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수정처럼 맑은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곁으로 바다거북이 유유히 지나가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카일루아는 아름다운 해변을 긴 속박촌이다. 이곳에서 별 5개짜리 유명 호텔을 찾아볼 수 없지만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어 현지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카네오헤 만은 화산 폭발로 땅이 꺼져 생성된 칼데라에 둘러싸여 있다. 카네오헤 만의 고요한 바다는 산호초 층과 형형색색의 열대어 떼로 유명한데, 해안가에는 초기 폴리네시아 정착민들이 해산물을

얻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독특하고 기발한 양어장들이 늘어서 있어 구경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섬 북부에 하와이의 디즈니랜드로 통하는 폴리네시아 문화센터가 있다. 17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공원에는 마케사스, 타히티, 피지, 톤가, 뉴질랜드 그리고 옛 하와이 원주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고대 폴리네시아 민속촌이 맛보기로 꾸며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장 볼 만한 것은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쇼, '레인보우스 오브 파라다이스'다. 알리리루아우 패키지를 이용하면 하루 동안 풍성한 오락거리는 물론 명숙 오븐에서 뜨겁게 요리된 칼루아 돼지고기를 포함한 뷔페까지 약 11만 원에 즐길 수 있다. [www.allhawaiitours.com](http://www.allhawaiitours.com) 혹은 [www.polynesia.com](http://www.polynesia.com) 참조.

Eastern Oahu offers the tranquility of the outer islands minus the airfare and extra traveling time. Green turtles waft by swimmers in the crystal-clear waters of Lanikai, considered one of the most exquisite beaches on the islands. Kailua, meanwhile, is a bedroom community with a lovely beach and no major hotels but many bed and breakfasts to choose from for those who want to get into the local vibe. The 17ha Polynesian Cultural Center is a hugely popular attraction whose sampler of ancient Polynesian villages portrays life in the Marquesas, Tahiti, Fiji, Tonga, New Zealand and old Hawaii. A favorite show there is

*Rainbows of Paradise*, an elaborate showcase of singing and dance. The Alii Luau package offers a full day of entertainment plus a buffet that includes kalua pig hot out of the ground oven for about US\$83. Make reservations at [www.allhawaiitours.com](http://www.allhawaiitours.com) or [www.polynesia.com](http://www.polynesia.com).

The serene waters of Kaneohe Bay, formed by a sunken volcanic caldera, are renowned for their coral formations and brilliantly colored schools of tropical fish. Along the shores are eye-catching and ingenious rock-bound fish ponds constructed by early Polynesian settlers to raise seafood.



© Galen Rowell / CORBIS / Topic Photo

하와이의 원시 대자연으로 떠나는 몰로카이 섬 모험 여행

# Molokai Island

원시림 트레킹, 해안 절벽 카약, 이 모두가 가능한 하와이 최고의 천연 테마파크 몰로카이 섬 완벽 투어 가이드.  
**For a taste of the "real" Hawaii, look no further than Molokai.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for centuries, the island remains an enchanting gateway into how Hawaiians used to live.**



© Douglas Peebles/CORBIS/Topic Photo

오아후와 마우이 섬 사이에 자리한 몰로카이 섬은 아직도 외부와 단절된 채 정적이 흐르는 곳이다. 670평방 킬로미터의 이 섬에는 도로가 별로 없으며, 숙박시설도 많지 않고 밤 문화를 즐길 만한 곳도 적다. 그래서 이곳은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하이킹과 카약을 만끽할 만한 모험의 섬이다. 몰로카이의 원시적 아름다움은 초기 뱃사람들이 도착했을 당시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 1865년, 높다란 절벽에 둘러싸인 칼라우파파 계곡이 나병 환자 격리 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그 원시성 때문이다. 한때 주술의 온상이라고 소문이 났었고 실제로 주술 목적으로 세워진 사원과 석조 신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되려 겁 없는 여행자들의 탐구심을 부추길 뿐이다. 변화무쌍한 지형을 따라 펼쳐진 일곱 개 하이킹 코스도 있다. 뾰족한 숲을 지나 바닷가 절벽에 이르는 산책길부터 반짝이는 태평양의 기슭 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까지 온갖 절경을 아우른다. 할라바 계곡 깊숙이 들어가는 산책길을 걷노라면 고대 영혼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다.

마카날루아 반도의 칼라우파파 국립역사공원 깊숙이 5킬로미터의 내리막길을 따라 하이킹을 할 수도 있다. 노새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거의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펼쳐지는 길은 험곡 안팎을 나선형으로 돌아나간다. 공원 내 마을을 지날 때에는 안내원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몰로카이는 미국에서 가장 길게 뻗은 원시 산호초의 온상이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다 카약의 메카다. 경험자든 초보자든 가이드의 인솔 하에 1킬로미터의 아찔한 해안 절벽 기슭을 따라 카약을 즐길 수 있다. 몰로카이 아웃도어스에서 스노클링 장비와 구명조끼, 카약을 빌릴 수 있다. 몰로카이 아웃도어스([www.molokai-outdoors.com](http://www.molokai-outdoors.com))의 카약 여행은 약 12만 원 선. 바다로 나가는 것 역시 필수다. 하루 2회 몰로카이에서 마우이까지 운항하는 페리를 타고 90분간의 즐거운 뱃놀이를 즐겨보자. 오가는 길에 고래나 돌고래를 볼 수도 있다. 몰로카이 관광협회 웹사이트 ([www.molokai-hawaii.com](http://www.molokai-hawaii.com))에서 섬 내 휴양시설과 여가활동 목록을 게재한다.

Molokai, nestled between bustling Oahu and Maui, is still on "island time." Overlooked by developers, the 670sqkm island has few roads, limited lodging and local performers for nightlife. The recently renovated Hotel Molokai is the best option for a short stay. Much of the island's haunting, primal beauty remains as it was when the first mariners arrived bringing their gods, laws and livestock with them. In places, this isolation was enforced: In 1865 it was determined that Kalaupapa, a valley framed by towering cliffs, would be the perfect place to isolate victims of Hansen's disease, or leprosy. Yet even before this, Molokai kept visitors at bay with its reputation as a hotbed of sorcery. Powerful priests, reportedly capable of killing people with prayer alone, practiced their nefarious arts most intensely here, and many temples and stone shrines built for this purpose remain for the more intrepid traveler to explore. Seven hikes are available, including everything from sea cliff walks to hikes deep into the lush Halawa Valley where spirits of the ancients still whisper to those who will listen. Kalaupapa National Historical Park is on the Makanalua Peninsula, which juts into the Pacific below the world's highest

sea cliffs. The 5km descent into Kalaupapa Valley can be hiked, but is most often done on the backs of mules that have made this trip countless times. Hugging the nearly perpendicular cliff, the trail corkscrews in and out of canyon ravines. There are still a few elderly residents living in the village so permission must be granted to enter by the National Historical Park guide. Home to the longest stretch of pristine reef in the United States, Molokai also offers some of the best sea-kayaking opportunities in the world. Beginners or advanced can kayak along the base of soaring 1,000m sea cliffs with an experienced guide. Snorkel gear, life vests and kayaks are provided by Molokai Outdoors. All you need to bring is plenty of sunscreen and a spirit of adventure. Molokai Outdoors ([www.molokai-outdoors.com](http://www.molokai-outdoors.com)) organizes kayak trips for about US\$90. The Molokai Visitors Association ([www.molokai-hawaii.com](http://www.molokai-hawaii.com)) has a list of vacation rentals, and all of the other activities on the island, including the Molokai Mule Ride to Kalaupapa. And whatever you do, make sure to get out on the water. Take the ferry that departs twice daily from Molokai to Maui for a fun 90-minute crossing. You might even spot whales or dolphins on the way.



© David Samuel Robbins/CORBIS/Topic Photo



Photo Resource HI / Danita DelMonte Agency / dtr.net

## 잊지 못할 하와이에서의 추억, 할레아칼라 분화구 일출 체험 Haleakala Crater

빅아일랜드의 눈 덮인 마우나케아 화산과 몰로카이에 에메랄드빛 봉우리, 오아후 섬을 한 번에 감상하는 방법.  
In a state known for its breathtaking beauty, the Haleakala Crater is in a league of its own.  
Come here at dusk or dawn and prepare to be mesmerized.

마우이 섬의 할레아칼라 분화구에서 펼쳐지는 일출이나 일몰은 가파른 화산 언덕을 오르는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안겨 준다. 해발 3000미터 높이의 정상에 오르려면 적어도 해가 뜨기 두 시간 전에 출발해야 함은 물론, 기온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카훌루이에서 정상까지 굽이굽이 펼쳐진 64킬로미터 도로를 지나다 보면 대체로 온 동물 상을 볼 수 있다. 하루 여행 코스로 제격이다. 전설에 따르면, 반신반인 괴수였던 마우이는 이 분화구의 끝자락에 서서 울가미 밧줄로 태양을 잡아 매어 태양의 속도를 늦췄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출 때 구름은 장밋빛으로 물들고, 아침노을 위의 하늘은 천상의 빛으로 타오른다. 또 칼데라 안에서 일몰이 시작되면 세상은 산뜻빛에서 진홍빛으로 물들며 빛의 율화를 연출한다. 푸우올라올라 전망대에 서면 빅아일랜드의 눈 덮인 마우나케아 화산과 몰로카이에 에메랄드빛 봉우리 그리고 300킬로미터 밖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른 오아후 섬까지 360도의 파노라마 같은 절경이 펼쳐진다. 폴리네시아인 어드벤처 투어는 마우이 내에 있는 호텔 투숙객에게 픽업서비스도 실시한다. 여행 경비는 약 9만 원 선. [www.polyad.com](http://www.polyad.com) 참조.

For those who make the pilgrimage up Maui's towering volcano, sunrise or sunset at Haleakala Crater leaves an indelible effect. You must begin this journey two hours before sunrise, and be prepared for cool temperatures and thin air when you reach the 3,000m summit. The snaking 64km drive from Kahului to the top takes you through a microcosm of diverse flora and fauna. If you only have one day, this is where you can see a little bit of all the island has to offer.

Legend has it that Maui, a devilish demigod, lassoed the sun from the lip of the crater, now called the "House of the Sun," to slow its track across the sky. When the sun does rise, the clouds below turn into rosy masses and the heavens above glow with ethereal light. Sunset inside the otherworldly caldera, which is large enough to contain Manhattan, sets off a fusion of color from coral to crimson. The Puu Ulaula Overlook affords a 360-degree vista taking in snow-capped Mauna Kea on the Big Island of Hawaii, the emerald peaks of Molokai, and Oahu jutting into azure skies some 300km away. Polynesian Adventure Tours ([www.polyad.com](http://www.polyad.com)) will pick you up at your hotel in Maui. Trips will cost you about US\$70.